

<어린 소진 지정 대본>

현조, 생각에 잠겼다

현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래, 뭐 별거라고. 다음주 출국이면 준비할 게 많겠네. 나중에 얘기해.

소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차분하게) 나중은 없어, 현조야.

작업실 짐을 싸는 소진.

소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우리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. 한국엔 안 돌아올 거니까.

짐 싸는 소진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현조.

현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헤어지자는 거야?

소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난 너가 그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.

현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니 맘대로 생각하지 좀 마.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. 혼자 생각하고  
결론 내지 말고.

소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말 없이 짐싸다가 울컥해서) 내가 많은 거 바래? 너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.

내가 멀리로 떠나면 보러 올 거라는 거. 그정도 확신도 그냥 못 줘?

욱하는 소진. 현조는 충격 받은 표정으로 쳐다본다.

소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넌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, 궁금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. 아니, 넌 그냥 아무것도  
관심 없잖아. 너랑 있으면 나만 매사에 간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. 진짜 비참해  
져.

현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울먹이다가 화난 표정) 야. 박소진.

소진 쳐다보는 현조